

# 서 평

Ⅰ 『번역 문장 만들기』: 영한번역을 위한

최고의 실무서

최인환



# 『번역 문장 만들기』: 영한번역을 위한 최고의 실무서

최인환

대전대학교  
비즈니스영어학과

번역 관련 서적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번역 연습을 위한 예문들을 수록한 실습서에 가까운 책들이 있는가 하면, 번역 과정의 다양한 경험, 에피소드 등을 소재로 전문번역가들이 쓴 칼럼형 교양서적이 있는데, 김보원 교수의 『번역 문장 만들기』는 전자에 속한다. 실습을 통해 번역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란 뜻이다. 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을 원래 ‘영한번역 기초’로 구상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다소 무미건조한 타이틀이긴 하지만 이 제목이 책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1부 <기초편>의 목차만 보면 집필 목표와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금방 드러난다. 무생물주어의 처리, 대명사 지우기, 형용

사의 변신, 수동태 뒤집기, 일치 강박 벗어나기 등 영문법 교재에서 익히 볼 수 있는 기본 문법 용어들이 각 장의 제목에 등장하는데, 구체적인 번역 스킬을 제안하는 저자의 접근법이 주로 어느 관점에서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 있다. 일반독자를 비롯하여 전문번역자들까지도 한국어 문법보다 영어 문법에 더 익숙하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실용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견 평범하게 보이는 목차와 달리 이 책의 진가는 그 평범한 제목 너머에 있다. 바로 사례로 제시한 풍성한 예문들이 이를 입증한다. 이를테면 ‘대명사 지우기’는 영어와 달리 대명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 한국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번역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실제 예문, 예제들은 꽤나 충격적일 정도로 두 언어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짧은 영어 문장 하나를 번역하면서 무려 네 개의 대명사를 ‘무시하고’ 번역에서 ‘삭제해야’ 표준적인 한국어가 되는 예문의 경우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지극히 평범한 문법 사항이지만, 대명사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두 언어의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문법 공부와 번역 스킬은 서로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그동안 영문법 시간에 기계적으로 가르치던 이른바 ‘해석’이 과연 적절한 교육방법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번역 연습을 위한 실습서인 동시에, 한국어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주는 책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지만 외국어와 대조할 때 한국

어가 어떤 언어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표현의 번역을 위해 내놓은 구체적인 (그리고 새로운) 제안들 중에는 주목할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one of ~ 최상급 복수명사’ 같은 구문의 번역은 어색한 한국어 표현 때문에 종종 번역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이 번역에서 ‘~중의 하나’같은 어색한 표현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별 언어마다 특정한 어법을 고집하는 표현들이 있게 마련이고, 이를 판별하는 능력은 도착어에 대한 번역자의 직관적 언어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저자의 직관과 이에 근거한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제안이다.

위에서 ‘영한번역 기초’라는 제목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사실 이 책의 진면목은 2부 <응용편>에서 드러난다. 2부 도입부에 배치된 ‘자상한 보충’과 ‘상쾌한 압축’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제안이다. 보충과 압축은 전문번역가라면 누구에게나 영원한 숙제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이 스킬을 적용할 때 번역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이다. 원칙적으로 번역자는 충실한 전달자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 두 장에 포함된 다양한 예문은 ‘자의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다. 정답은 없다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보충과 압축의 스킬을 적용할 때 번역자가 유의해야 할 ‘자의성’의 한계를 다양한 예문을 통해 보여 주기 때문이다.

‘반전 번역’이란 신조어로 제안한 ‘뒤집어 번역하기’의 요령은 무척 흥미로운 장으로, 번역자의 작업도 창조에 가까운 기쁨을 줄 수 있는 행위임을 새삼 깨닫게 만든다. 구문의 반전이나 어휘의 반전 등이 장의 세부 목차를 꼼꼼히 살펴보면 예문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다양한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어떤 점에서는 이 장의 내용만으로도 한 권의 번역실무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번역 요령은 실제 번역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은 10장의 ‘순차번역의 흐름’이다. ‘순차번역’은 온라인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말이지만 아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동시통역’과 구분하여 사용하는 ‘순차통역’의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출발어의 어순에 따라 도착어 어휘를 배치해 보자는 다소 충격적인 발상이다. 익히 알다시피 SVO와 SOV의 차이는 한국어와 영어의 핵심적인 차이이며, 이 차이를 비롯한 어휘의 순서 차이가 번역자 및 통역자들의 눈과 귀와 시간을 잡아먹는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의 제안대로 출발어의 어순에 따라 도착어를 구성한 몇몇 예문의 사례는 이 스킬을 충분히 확대 적용해 볼 만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며, 특히 복문의 처리에서 이 스킬은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장은 혹시 뛰어난 영문법 실력이 거꾸로 좋은 번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도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책의 성격을 번역 연습을 위한 실습서라고 했는데, 편집의 측면에서 평가해 줄 대목이 있다. 출발어와 도착어의 문장을 책의 양면에 나누어 배치한 설정이 대단히 효과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책을 통해 번역 연습을 하는 독자라면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출발어와 도착어의 문장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번역 스킬이 적용된 어구에 색조 표시를 하여 구분함으로써 가독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별 연습문제에 붙인 주석의 양이 어떤 경우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무 압축형이라는 점이다. 책의 부피가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예문이 없는지 살펴보고 개정판에서는 수정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익히 알다시피 저자는 『반지의 제왕』을 비롯한 JRR 톨킨의 판타지 소설을 다수 번역한 전문번역자이며, 실제 이 책에도 그 번역 과정에서 찾아낸 흥미로운 예문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고유명사의 번역 등과 관련한 에피소드는 일반독자들에게는 무척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면 좋을 것으로 본다. 기왕에 실무서로 기획한 책이라면 보완이 필요한 장이 또 하나 더 있다. 바로 1부의 ‘문장부호의 번역’을 다루는 장이다. 문장부호는 사실 번역 현장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장에서 제시한 여러 스킬은 실제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팁을 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장의 분량도 좀

더 늘려서 지나치게 요약하여 서술한 내용은 보완하고, 또 ‘괄호’를 비롯하여 누락된 몇몇 부호에 대해서는 새로이 예문들을 발굴하여 원고를 추가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기계번역이 번역자라는 오랜 직업의 안정성을 위협한 지 오래가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번역은 인간의 손으로만 가능하다는 진실 또한 도전받지 않을 것이다. 번역을 통해 언어와 문화, 사람들 간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자 한다.